마약 복용· 집단 성관계·23차례 원장살해 시도…

H수련원 엽기행각은 자작극

광주지검, 71명 전원 '무혐의' … "원장 보호 위해 허위 자백"

마약 복용과 집단 성관계, 원장 살해 시도 등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광주 H수련회원들의 엽기행각〈본보 2009년 12월 19일자 1면〉은 회원들이 꾸민 자작극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H수련원생들은 사기죄로 기소된 원장 L(여·56)씨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으로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애초 원장 살해 시도는 물론, 마약을 복용하거나 강요에 의해 집단 성관계를 맺은 적도 없었다.

이같은 사실은 경찰과 검찰이 지난해 7월 1일 H수련회원 71명이 광주지검에 낸 자술서를 낸 지 7개월여 만에 밝혀졌다. 종교집단화된 한 수련원 측의 헛된 욕심이 반 년 넘게 검·경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든 셈이다.

◇검찰, "수련회원 71명 무혐의"=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 철)는 1일 L원장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받아온 H수련회원 71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초 H수련회원들은 검·경 수사에서 음식물에 독극물을 타고 계단에서 밀어뜨리는 등 무려 23차례에 걸쳐 L원장과 가족을 살해하려 했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L원장 등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으며, 범행에 사용했다는 독극물도 자수하기 직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회원들에게 마약을 먹여 집단으로 성관계를 맺은 뒤 이 장면을 촬영해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회원이 연출해 찍은 영상자료만 있을 뿐 다른 증거는 없었다.

아울러 이들이 경찰에서 "마약을 복용했다"며 제시한 졸피뎀, 다이아제팜은 병원에서 불면증 처방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약이었다. 지난해 12월 마약 투약과 집단 성관계 등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들의 엽기 행각이 모두 허구로 드러난 것이다.

◇수련원 측의 헛된 욕심…7개월간 검·경 '골탕'=검찰은 이번 H수련원 사건은 일부 회원들이 종교집단의 교주처럼 떠받드는 L원장을 보호하기 위한 자작극으로 보고 있다.

L원장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자신들의 음해로 원장이 누명을 쓴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71명이 허위진술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들이 단순히 '원장 보호' 차원에서 자작극을 꾸몄다고 보기엔 가담 인원이 너무 많고, 범행 수법도 전혀 현실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발생 초기부터 ▲회원들이 23차례나 살해시도를 한 점 ▲71명 모두가 범행을 자백한 점 ▲3년간 헌금 18억5천만원이 감쪽같이 사라진 점 ▲L원장의 재판이 진행중인 점 등에서 자작극 가능성이 높게 제기돼 왔다.

또 이들의 터무니없는 진술로 인해 장기간 검·경의 수사력을 낭비했다는 점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검·경은 지난해 7월부터 H수련원 회원 71명이 "L원장의 정신수련법을 훔치기 위해 23차례에 걸쳐 원장 살해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H수련원 자작극 동기 의문 증폭

前 회원 살인 미수 사건 '주목'

배후 밝힐 단서 될 듯

'광주 H수련회 원장 살인 미수 사건'은 회원들이 원장을 보호하기 위해 꾸민 자작극으로 드러났지만 이 사건의 동기와 배후 등에 대한 의문은 되레 증폭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1일 H수련회 회원 71명을 전원 무혐의 처리함에 따라 앞서 발생한 '광주 H수련회 전(前) 회원 살인 미수사건'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수련원 측이 자작극을 꾸민 이유와 배후 등을 밝혀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H수련회원 황모(47)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45분께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 앞길에서 전 H수련회원 박모(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황씨는 4년여 전까지 H수련회원이던 박씨 등이 당시 민사(건물 소유권 문제)·형사 소송을 제기한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고소로 L원장은 지난해 9월 사기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상한 점은 '박씨 살인 미수사건'이 L원장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사건 당시 황씨와 박씨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는 점도 의구심을 키우는 요인이다. 또 H수련회원 정모(53)씨 등 12명은 지난해 7월 초 검찰에 자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황씨와 박씨를 공범으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박씨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 정씨 등이 이같은 주장을 한 배경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는 L원장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된 재판을 뒤집기 위해 황씨와 정씨 등 H수련회원들을 박씨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면서 사건을 배후조종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씨는 지난달 초 황씨에 대한 추가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광주지검에 제출했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4월 1일 북구 우산동에서 테러를 당했는데, 이는 황씨가 H수련회원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했다는 한 회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금융사기 반환 거부 은행 피해자에 200만원 돌려줘 "고객 입장에서 일 처리"

금융사기 관련 범죄계좌에 대해 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계좌에서 압수해 신속히 피해자에게 돌려주려던 경찰의 영장집행을 거부해 논란〈본보 1월 28일자 6면〉을 빚은 A은행 광주지점은 1일 피해자 정모(여·31)씨에게 피해금 200만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 은행 관계자는 "인터넷 채팅 중 친구로 가장해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 돈을 가로챈 '메신저 사기'는 흔치 않는 사건이라 본점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졌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히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동부경찰은 이날 이른바 '메신저 사기'를 저지른 사람에게 통장을 건넨 김모(27)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교차로 꼬리물기 "꼼짝마" 출퇴근길 교차로 꼬리 물기에 대한 경찰의 단속 첫째 날인 1일 오후 광주시 동구 한미쇼핑 4거리에서 경찰이 차량의 이동을 캠코더를 이용해 촬영하고 있다. 광주경찰은 이날 하루 꼬리 물기를 한 운전자 95명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양시 광영동 일대 의문의 바닷물 범람

도로까지 넘쳐 긴급 통제 … 주민들 불안

1일 오전 11시께 만조시에 광양시 광영동 일대 도로에 바닷물이 범람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바닷물은 광양만 인접지역인 광영동 입구와 중동 홈플러스 진입로 등 차도로 넘쳐 차량통행에 지장을 줬으나 침수피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1시간 가량 긴급 교통 통제에 나섰다.

이번 바닷물 범람은 조위관측 이후 첫 사례여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필순 광양시의회 의원은 "공장 건립을 위해 광양만을 계속 매립하면서 수면이 상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분별한 매립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조위관측이래 처음 발생된 일이라 당황스럽다"며 "향후 진위를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왜 아는 체 안해?

내연녀 살해 40대 영장

순천경찰은 1일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구모(40)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께 순천시 모 횟집 앞에서 내연녀 신모(48)씨가 자신을 모른 체하자 말다툼 끝에 가지고 있던 흉기로 신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신씨가 평소 만나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학원강사, 여대생 성폭행

광주남부경찰은 1일 방학기간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대생을 성폭행한 광주 모 학원 강사 황모(40)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2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아르바이트생 A(여·21)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할아버지와 손자는 용감했다"

쌍나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절도범이 인기척에 놀라 달아나던 중 50여m를 뒤쫓아온 50대 할아버지와 10대 손자에게 붙잡혀 경찰서행.

○…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임모(23·북구 문흥동)씨는 지난달 31일 밤 11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이모(57)씨의 2층 주택에 침입, 물건을 훔치려던 중 잠에서 깬 이씨와 이씨의 손자(16)를 보고 도망쳤다는 것.

○…임씨는 이씨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깜짝 놀라 대로변으로 도주했으나 이를 지켜보고 지름길로 50m를 추격해온 이씨의 손자에게 덜미.

○…임씨는 경찰에서 "만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용변이 급해 남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진술.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